메트로 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필리핀 초강력 태풍 사망자만 1만명 p/11

라인 덕분에! 네이버 '탄탄대로'

3분기 영업익 무려 1045억 다음은 모바일 검색광고로 선전·SK컴즈는 8분기 연속 적자

수능 다음은 정보전쟁 빼곡한 대입 설명회장 10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메가스터디 2014 대입 최종지원 전략설명회에 수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입시업체들은 서울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3~4점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네이버 승승장구·다음 와신상담·네이트 설상가상'

을 3분기 실적 발표를 끝낸 국내 3대 포털의 위상이 굳히기 모드로 들어갔다. 검색 시장 점유율 1위 네이버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추격자 다음과 3위 네이트는 각각 '안정적 성장'과 '후진'을 하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다음·SK커뮤니케이션즈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최근 마무리됐다. 실적 내역을 보면 네이버·다음·네이트의 점유율 순서대로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네이버는 가장 크게 웃었다. 매출 5853억원, 영업이익 1045억원, 당기순이익 762억원을 기록한 것이다. 업계 점유율 70%를 웃도는 네이버 시장 파워에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힘을 보탠 결과다.

3분기 실적 일등공신 라인은 전세계 신규 가입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466.7% 전분기 대비 50.4% 성장하며 매출 1758억원을 차지했다. 순매출만 1286억원이었다. 2011년 6월 출시된 라인은 해외시장에서 큰 반응을 얻으며 지난 1월 가입자 1억 명을 넘어섰고 7월에는 2억 명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이번 달 말 라인 가입자 수가 3억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에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도 선전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네이버에 밀려 업계 2위로 주춤했던 다음은 모바일 검색광고 확장 등으로 재기의 발판을 다졌다.

다음의 3분기 매출은 1297억원으로 검색광고 매출 강화와 모바일 광고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03억원이었다. 하지만 업계 시장점유율 15% 안팎의 다음이 질 때 네이버는 날고 있어 옛 영광을 되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컴즈는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 중이다.

3분기 매출 319억원, 영업손실 93억원, 순손실 76억원을 보이며 매출액은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1%, 35.9%나 감소했다. 싸이월드의 침체와 카카오톡 PC 버전 출시로 인한 네이트온 이용률 감소 등의 악재가 누적된 탓이다. 네이트의 시장점유율은 2~3%에 그치고 있다. SK컴즈는 싸이메라의 글로벌 SNS 출시와 네이트온 모바일 버전 개발 등으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포털 업계 대표는 실적 발표를 즈음해 회사 상황을 반영한 뼈 있는 발언을 남겼다.

네이버 김상헌 대표는 "비수기임에도 고른 성장을 기록했고, 특히 라인이 매출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 해외시장을 무대로 더 큰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검색에서 선전한 다음 최세훈 대표는 "모바일 포털 경쟁력 강화에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이라며 "SNS·게임 등 새로운 서비스에 1000억원 규모를 투자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유동희기자 unkue@metroseoul.co.kr

安과 특검공조 '야권연대' 승부수

Issue&View

민주, 대선 호재 등 의미는?

/김민준기자 mkjun@

정기국회가 여야의 특검 충돌로 또다시 멈춰섰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채 대검찰청사 앞에서 국정원·국군 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대선개입 의혹, 경찰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국정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 관련 직권남용 의혹 등 6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원샷 특검'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어 9일 오후에는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촉구 9차 국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여권을 압박했다. 12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대응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의 출범을 앞두고 시민사회를 대표해 김상근 목사가 자리해 연대를 과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내년 6·4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빼앗긴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총선과 대선에서 연패한 뒤 10·30 재보선마저 패하면서 위기론에 휩싸인 민주당은 최근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구체화하고 특검을 수용하면서 주목을 받자 이를 경계하려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당원들과 국정원 개혁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움직임도 감지된다.

또 안 의원이 주장한 특검에 공조해 공동 보조를 취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정치 연대도 모색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해산 청구를 제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불공정 공취가 여러 차례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이 현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민주당은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발 빠르게 '야권 연대'를 위한 행동을 취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외면하고 거리로 나서는 야권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새누리당이 정당 해산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야권을 몰아붙인다면 민주당은 강경 노선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기초연금, 지금대로면 2억9279만원 받는데 정부안 확정땐 2억5019만원

20세 4260만원 '손해'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기초연금 정부안을 시행하면 현재 20세의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수령액이 4300만여 원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의뢰로 기초연금 정부안의 예상 수령액을 추계한 결과, 올해 기준 만 20세(1993년생) 청년이 기대여명까지 생존한다면 65세부터 23년간 2억5019만7000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유지된다면 2억9279만6000원을 받게

연령별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령액 비교

돼 결과적으로 20세의 경우 기초연금 도입으로 4259만9000원을 덜 받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30세는 2782만1000원, 40세는 1541만4000원, 50세는 946만7000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60세(1953년생)는 사망 전까지 받게 되는 정부 기초연금안에 따른 연금 총액은 5616만원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따른 연금 총액 5690만원과 불과 74만원 차이가 나 큰 손해를 보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기초연금 입법예고안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연령별 기대여명을 모두 반영한 수령액 추계 결과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대여명이란 각 연령별로 남아있는 수명을 뜻한다.

/김민지기자 mini@metroseoul.co.kr

"그녀석 잘생겼네" 10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15회 국제 애완동물·용품 박람회에서 도그쇼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뉴스

안철수 싱크탱크 '내일' 실행위원 466명 발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했다.

안 의원의 싱크탱크 격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10일 지역 조직화를 담당할 전국 12개 권역 466명의 실행위원의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다.

서울 113명, 경기 72명, 인천 28명, 대전 32명, 충남 16명, 충북 14명, 광주·전남 80명, 전북 61명, 부산·경남 41명, 제주 9명 등이다. 이로써 앞서 발표된 68명을 포함해 총 534명의 실행위원 인선이 완료됐다.

부동산실명제 어기면 법인·대표도 형사처벌

앞으로는 부동산실명제를 어긴 법인과 그 대표자가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가 10일 입법예고한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안은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할 경우 그 법인과 실제 행위자인 법인 대표 또는 당사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또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능 수험표 있으면 유람선 요금 30% 할인

서울시가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여의도와 잠실 선착장에서 '수능 수험표 유람선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수험생들은 수능 수험표를 제시하면 일반 승선 유람선의 요금을 약 30% 할인받을 수 있으며 동반 1인까지 적용된다.

여의도에서 출항하는 유람선은 밤섬과 선유도, 잠두봉과 성산대교를 돌아 양화 선착장에서 다시 여의도로 돌아오며 잠실에서 출항하는 유람선은 뚝섬과 서울숲, 반포대교 부근을 돌아 잠실로 돌아오는 코스로 운항된다. 문의 02)3271-6900

'부인 재산 5억 과다신고' 윤석열 또 징계위기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사진) 여주지청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데 이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윤 지청장이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 부인 재산 5억여원을 잘못 신고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부인 재산 5억1000만원을 잘못 신고한 윤 지청장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하고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잘못 신고한 액수 중 4억5000만원은 채무금으로 윤 지청장은 재산을 과다신고한 것이다.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 잘못 신고한 재산이 3억원이 넘으면 징계요구를, 5000만원~3억원이면 경고를 한다.

윤 지청장은 지난해 결혼해 처음으로 부인의 재산을 신고하다 착오를 범했다고 소명했다.

윤 지청장의 부인은 수십억대 자산가로 윤 지청장은 결혼으로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준기자

중앙우체국 화재진압 훈련

서울중앙우체국은 중부소방서와 합동으로 7일 오전 포스트타워 웨딩홀 공장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했다.

/서울지방우정청 제공

<감사원장 후보자>

"황찬현 최소 두차례 위장전입 의혹"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두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0일 "황 후보자는 1981년 7월부터 2년간 5차례 주소를 바꿨으며, 이 중 최소 두 차례는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1981년 경기도 광주군에서 서울 강동구 암사동으로 배우자와 함께 주소를 옮겼고, 1982년 다시 서울 강동구 길동으로 이사한 뒤 5개월 만에 가족 전원의 주소지를 경기도 광주군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황 후보자는 "아내가 출산을 앞둬 서울 산부인과에서 진료와 출산을 하기 위해 전입했다"고 해명했지만, 서 의원은 "당시 황 후보자의 (부인이) 장녀를 용산구 병원에서 출산했는데 병원과 멀리 떨어진 강동구로 전입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은순기자

"서울 추위 맞네" 쌀쌀한 날씨를 보인 10일 오전 두꺼운 복장을 한 관광객들이 서울 경복궁을 산책하고 있다. 기상청은 11일 오전 서울 아침 기온을 영하 1도로 예보했다. /연합뉴스

서울 영하 1도 한낮에도 덜덜

11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이날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6도로 예상됐다. 춘천 등 강원 산간지방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에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고, 체감온도가 0도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옷을 두툼하게 입기를 조언했다.

/윤다혜기자

'불혹 서울'…평균 연령 39.2세

인구는 첫 2년 연속 감소

서울 인구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시민 평균 연령은 2011년 38.7세에서 지난해 39.2세로 높아져 40세를 눈앞에 두게 됐다.

서울시가 10일 발간한 '2013 서울통계연보'를 보면 서울 인구는 1960년 244만5000명에서 2012년 1044만2000명으로 4.3배 늘었다.

서울 인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0년 1057만5000명을 기록한 뒤 2011년 1052만9000명, 2012년 1044만2000명으로 처음 2년 연속 줄었다.

세대 수도 2012년에 전년보다 1만4782세대가 줄어든 417만7970세대로 집계됐다. 시민 평균 연령은 전년보다 0.5세 높아진 39.2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루 평균 출생자 수는 257명으로 전년보다 6명 늘었다. 혼인은 196쌍, 이혼은 55쌍으로 전년(혼인 196쌍, 이혼 56쌍)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동차 전체 등록 대수는 2011년보다 0.3% 줄어든 296만9184대로 집계됐다. 자량 수가 감소한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유선준기자

JS전선 불량 케이블로 한수원 1조4000억 손실

한국수력원자력이 JS전선의 불량 케이블 납품으로 1조4599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JS전선은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제어 케이블, 신고리 3·4호기에 전력·제어 계장 케이블의 시험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나 원전 가동을 못하고 있다.

10일 한수원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에 제출한 사실소명서에 따르면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의 가동 중단에 따른 발전 손실과 새 케이블 구매·교체 비용이 39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을 모두 납품한 신고리 3·4호기의 경우 준공 지연과 새 케이블 구매·교체 비용으로 1조660억원의 손실을 봤다.

/윤다혜기자 yd@

'깜깜이'라도 수시에 승부

어려운 수능에 정시까지 가기 불안…수험생들, 수시 안전지원 경향 확산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어려웠던 시험과 첫 수준별 수능에 혼란을 겪으면서 수시 모집에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입시업체들은 10일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등급 커트라인과 주요 대학 합격 점수 추정치를 내놓으면서 "예년과 비교하기 어렵고 A·B형 유형별로 따져야 하는 탓에 수험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워 정시까지 가기 불안해한다"며 "수시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수험생이 늘어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인문·자연계 모두 합격선 하락

이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합격선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대학 정시모집에서 최상위권 대학의 인기 학과에 지원하려면 수능 원점수 기준으로 390점(400점 만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날 학원가에서 내놓은 서울시내 주요 대학의 예상 합격 점수를 보면 서울대 경영대가 393~396점으로 지난해보다 1~3점 낮아졌다.

수시 논술전쟁 10일 성균관대에서 치러진 2014 수시모집 일반학생전형 논술시험에서 수험생들이 문제지를 배부받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 경영계열은 390~394점, 고려대 경영대 389~394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383~388점, 서강대 경영학부 380~385점, 한양대 정책과학대 379~383점, 중앙대 경영대 372~378점을 예상했다.

이과 계열에서는 의예과 합격선이 많게는 7점 이상 낮아졌다. 서울대 의예과의 합격선은 391~392점, 연세대 의예과는 389~390점, 고려대 의과대는 387~389점이 돼야 합격이 안정적인 것으로 예상됐다.

성균관대 의예 387~389점, 한양대 의예 384~386점, 경희대 한의예는 374~376점을 합격선으로 제시했다.

이번 자료는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전형에서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의 형태가 반영되고 대학 전형별로 반영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입시 전략을 짤 때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학원들은 당부했다.

/김민준기자 minjun@metroseoul.co.kr

스마트폰 채팅 앱 이용해 10대 알몸사진 받아 보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10대 소녀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해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월 27일부터 약 보름간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만난 초·중·고교 여학생 34명에게 알몸 셀카 사진을 전송하고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도록 해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다혜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도스토예프스키 태어나다

톨스토이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가 1821년 11월 11일 태어났다. 대학 졸업 후 "가난한 사람들"로 크게 주목받았으나 급진적 사회주의 모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시베리아 유형에서 5년간 유형생활을 했다. 형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온 후 "죄와 벌", "백치", "악령" 등을 저술했다. 쉬지 않고 쓴 도박 빚 때문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출판사와 무리한 계약을 하며 마감에 쫓기는 날을 보내던 그는 마지막 걸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탈고한 후 몇 달 뒤에 6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동의대 '그린카드 대학생 공모전' 대상

왼쪽부터 김세진, 김민구, 윤현미씨.

동의대학교는 이 대학 광고홍보학과 김민구(4학년), 김세진(4학년), 윤현미(2학년) 등으로 구성된 크러쉬(crush)팀이 최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최한 '그린카드 대학생 공모전' 기획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친환경 소비 실천 및 그린카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 팀은 '내가 그린 그린(Green)'이라는 콘셉트로 그린카드 사용 시 환경이 보호됨을 알리는 메시지 기능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 소비를 촉진시키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기획해 기술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정하균기자

지역희망박람회 열린다

27일부터 나흘간 벡스코서…지식콘서트 등 주민참여마당도 마련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지역희망박람회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해 부산시 등 17개 시·도,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 12개 중앙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지역발전정책 종합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에 희망을, 주민에게 행복을'이란 표어 아래 전국의 지역 발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막식, 전시회, 콘퍼런스, 우수 사례 발표회 등 새 정부의 지역 발전 비전과 정책들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희망박람회 전시회에서는 학생을 비롯한 일반인 누구나 쉽게 보고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지식콘서트, 체험관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마당을 마련해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시장 중앙에 배치되는 부산시 전시관은 부산의 대표적 이미지인 광안대교를 형상화한 높게 솟은 주탑이 부산의 미래를 상징하고 조명 효과를 통해 관람객의 시선을 끌도록 제작된다.

이 밖에 부산의 투자 환경을 알리기 위한 외국인투자설명회도 27일 저녁 센텀호텔에서 개최된다. 한편 부산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창조경제시대의 지역 전략산업'이라는 주제의 콘퍼런스는 28일 오후 제1전시장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가 부산에서 열리게 된 것은 그만큼 부산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지역발전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지역희망박람회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울산 앞바다 기름오염 막아라
10월 울산시 울주군 온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이송관 파손 사고로 기름이 유출되자 해경 방제선 등이 방제 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고 선박인 16만t급 대형 유조선 씨 이터니티(?)호에서 작업선이 파손된 이송관의 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해경 방제선들이 방제하는 모습. /연합뉴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오늘 판가름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순조로운 착수 여부는 오는 11일 개회하는 부산시의회 제2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박중묵 의원은 지난 7일 기획재경위원회(기재위)가 조건부 의결한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 토론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조례안이나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이 통례지만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표결 처리한다.

이럴 경우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최종 의결된다.

박 의원은 "부산발전연구원이 제시한 편익비용(B/C) 계산에 분자와 분모를 달리해 적용하는 등 6가지 오류를 발견했다"며 "부산발전연구원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 시의회를 들러리로 보는 듯한 태도를 간과할 수 없어 반대 토론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재위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상정을 보류한 이 동의안에 대해 7일 오후 긴급 상임위를 열고 '초과 수익이 7.1% 이상 발생할 경우 민간 사업자와 부산시가 50대50으로 배분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실시협약에 명기한다'는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입지 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사업도 다시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된다.

영화체험박물관의 중구 용두산공원 부지를 반대해온 행정문화위원회(행문위)는 기재위가 7일 오후 열린 상임위에서 용두산 부지를 고수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이에 반발, 8일 오후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관련 공유재산 처분 동의안만 남겨두고, 영화체험박물관 관련 부분은 모두 삭제했다.

부산대선공약 정책 간담회 민주당 부산시당 부산대선공약실행촉구 특위와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는 지난 8일 오전 부산일보사 10층 고객라운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 대선공약의 이행과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 실행 촉구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부산보훈청 현충시설 공모전 시상 부산지방보훈청장 유주봉(?)은 지난 8일 청사 회의실에서 '부산지역 현충시설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3·1독립운동기념탑을 주제로 한 일반부 대상 박세준(금정구)씨를 비롯해 일반부 14명, 학생부 10명이 수상했다.

광안대교 밤마다 레이저쇼

이르면 내년 3월부터…수영구 4억여원 들여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부산 광안대교에서 밤마다 화려한 레이저 쇼를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수영구는 4억1800만원을 들여 광안대교를 받치는 앵커리지 두 곳에 컬러 레이저(RGB) 프로젝트와 원격제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주에 조달청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뒤 실시설계를 거쳐 연말에 본격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밤에 하늘을 향해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항공기 운항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본격 공사 전에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2월 말에 준공해 3월부터 광안대교 앵커리지에서 형형색색의 레이저를 쏴 부산을 상징하는 글자나 문양을 만들어내게 된다.

또 지난 10월 광안대교 전체에 설치한 LED 조명과 조화를 이루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광안대교 레이저쇼의 연출과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은 부산시설공단이 맡게 된다. /연합뉴스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TF팀 운영

연제구 민·관 협조체계 구축

연제구(구청장 이위준)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는 최근 기후변화로 남부지방에도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사전대비 추진기간으로 지정, 올 겨울철 재난대비 사전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겨울 취약지 및 시설물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선제적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제설장비 점검 및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 민간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대설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마련하는 한편 연제경찰서, 관공서 등 유관 기관과 민간단체에도 필요 시 제설장비를 배부하는 등 민·관 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산업체 체험학습

동원과학기술대학교(총장 장호익) 경영회계·유통물류경영학과는 지난 6일 강원도 강촌에 소재하고 있는 더존IT그룹의 사옥 더존강촌캠퍼스로 '찾아가는 산업체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더존IT그룹의 소개, D클라우드 소개 및 투어, 더존비즈온 이중현 부사장의 특별 강연, 클라우드 기반의 프로그램 시연 참관, 스마트 A 회계 프로그램의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러브상자 1만1000개 어려운 이웃에 전해요 9일 오후 부산 수영요트경기장에서 러브상자운동본부 주최로 '2013 러브상자 만들기 및 전달식'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만들어진 1만 1000개의 러브상자는 5만원 상당의 생필품으로 구성돼 사회복지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자속독' 집중·독서력↑"

최정수 동아대 평생교육원 교수 프로그램 개발
"무형적 학문 특허획득…초등학교 수강생 급증"

현 시대는 융합의 시대다. 기술·산업·교육도 융합 프로그램이 있어야 앞서갈 수 있다.

시대의 흐름을 등한시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발전은 없다.

여기 융합 교육이 30여 년의 연구 끝에 개발돼 세계 최초로 두뇌개발한자속독으로 발명특허를 획득한 교수가 있어 주목된다.

그는 미국 솔로몬대학교 석좌교수 겸 동아대 평생교육원 교수인 최정수(사진)씨로 34년간 국내외의 다양한 서적들을 탐독 집중적 한자속독에 관한 논리를 정립했다. 본 기자는 지난 2011년 39기 과정을 수료한 바 있다.

지난 8일 그의 연구실을 찾았다. 책상 한가득 널브러져 있는 서류 및 교육 서적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열정과 땀이 녹아있는 듯 낡고 오래된 서적들이 방 한가득 진열돼 있었다.

이날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한자속독 융합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최 교수는 "유형의 물질적 특허가 아닌 무형적 학문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며 한자 속독의 교육 목표는 두뇌계발과 집중력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두뇌계발한자속독은 우리 뇌의 생리학적 원리에 맞춰 개발된 융합 교육이다. 특히 과학적인 교육 훈련을 통한 좌·우뇌 활동 증진으로 두뇌가 계발돼 집중력이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따라 훈련하면 좌·우뇌의 활동 증진으로 두뇌가 계발되고 집중력이 강화돼 더불어 국·영·수 등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자는 쉬고 빠르게 습득·장기 기억되는 동시에 정확한 속도 논리가 병행돼 독서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강점을 가진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인기가 '강남스타일' 급이라며 한자 속독은 전국 초등학교에서 수강생 100명이 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등 교육 효과가 이미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두뇌 용량을 크게 만들어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며 지능은 좌뇌, 재능은 우뇌, 좌·우뇌가 같이 계발돼야 뛰어난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뇌 전문 과학자들이 좌·우뇌 활성화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동아대평생교육원 최정수 교수 연구실 051)243-1137 /장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백양로 연결도로 개설 속도낸다

철길에 가로막혀 접근성이 떨어졌던 부산 사상구 백양로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 탄력을 받고 있다.

사상구와 부산시는 학장사거리와 백양로 간 도로 개설 설계비 17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도로는 지하차도 320m와 접속도로 1220m로 곧장 백양로와 연결돼 완공되면 백양로를 오고 가기 편리해질 전망이다.

특히 평행하게 놓인 철길로 인해 진출 입구가 한정됐던 백양로를 직접 연결하는 이 도로는 사상구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현재 부산시가 백양로 연결 방안 타당성 용역 중이며 내년 2월 마무리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790억원 규모다.

사상구의 한 관계자는 "예초 사업 착수 후 예산 미확보 등으로 17년이 경과됐지만 내년도 설계비 확보로 연결도로 사업이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통기한 표시안한 단호박가루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청은 토종마을(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대표 김모(남 47세)씨가 제조한 유통기한 미표시 '단호박가루(1kg)' 제품에 대해 유통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김씨는 '단호박가루(1kg)' 제품의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채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 기원 담은 빼빼로 선물하세요

롯데호텔부산 델리카한스

11월 11일은 커플들의 마음을, 의리로 뭉친 직장인의 마음을 또는 가족의 마음을 흔들 일명 빼빼로 데이다.

이에 롯데호텔부산 베이커리 델리카한스에서는 올해 조금 더 특별한 빼빼로를 판매한다. '우리 우정 길게 가자' 혹은 '우리 사랑 오래도록' 또는 '가족의 건강을 위한' 등의 장식과 선물의 의미로 빼빼로 끝에 장수를 상징하는 壽(목숨 수)'를 새겨 넣었다.

이는 사랑과 우정도 좋지만 가족·연인의 장수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됐다고 호텔 측은 밝혔다.

특히 호텔 제과장이 손수 아몬드 가루와 코코아 가루를 듬뿍 넣고 구워낸 본 제품은 부드러운 초콜릿과 바삭한 토핑이 어울려 그 맛이 일품이다. 또 델리카한스만의 빼빼로는 매년 그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11일 호텔 각 레스토랑에서는 빼빼로 데이전용 메뉴를 판매한다. 한식당 무궁화에서는 대추편으로 만든 빼빼로, 중식당 도림에서는 수제 빼빼로와 빼빼로 모양의 춘권이 제공된다. 또 양식당 와인앤다이닝에서는 빼빼로데이 특선 주방장 디저트가 제공될 예정이다. 가격은 약 1만5천원(세금 봉사료 포함). 문의 051)810-1000 /장하균기자

market index <종합>

코스피	코스닥
1984.87 (-19.17)	515.74 (-4.91)

금리	환율
2.59 (-0.01)	1064.50 (+3.50)

뉴스&뉴스

국민은행 거액 비자금 도쿄지점서 국내 유입

■ 금융 당국이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민은행 도쿄지점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도쿄지점장이 부당 대출을 해주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의 일부인 10억~20억원 정도가 국내로 흘러들었다. 금융 당국은 일부 경영진의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좌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문제의 도쿄지점장이 승진을 위한 공적 조서를 작성한 서류에서 적발됐다. KB금융 경영진은 수차례 도쿄를 방문한 뒤 해당 지점장의 승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현진기자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11	18	21	26	38	43	29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990,538,465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49,524,085
3등	5개 숫자 일치	1,523,837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작
편집국장	조민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경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659-2000
독자센터	(02)721-988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06

'바이 코리아' 이을 유럽의 선물

ECB 깜짝 금리인하 배경과 국내 금융 영향 전망

유럽중앙은행(ECB)이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CB는 지난 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현행 0.5%에서 0.25%로 인하했다. ECB는 올 들어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후 동결 기조를 이어오다가 6개월만에 다시 역대 최저치로 낮춘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유로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낮은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물가가 너무 낮아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존의 더딘 경제 회복 속도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양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드라기 총재는 이날 금리 인하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의 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도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ECB의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지환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ECB는 시장의 우려에 한 박자 빠른 대응으로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금리 인하도 그 연장 선상에서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한 연구원은 "ECB의 금리 인하 결정으로 유동성 여건 개선과 더불어 경기 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럽계 자금을 중심으로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 개선도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럽계 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일 경우 소재·산업재가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업종 측면에서는 소재와 산업재 등 유럽 증시의 흐름과 유사한 패턴을 형성한 시크리컬 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회복세가 주춤해진 벌크선운임지수(BDI)의 개선이 기대되고, 선박금융의 여건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다.

/김민지기자 min @metroseoul.co.kr

갤노트3 화사한 핑크라인 삼성전자는 10일 '갤럭시 노트3'의 분홍색 블러시 핑크 모델을 새롭게 출시했다. '갤럭시 노트3 블러시 핑크' 모델은 가죽 느낌이 나는 후면(후터리) 커버를 감성적이고 트렌디한 이브 스타일로 디자인했을 뿐 아니라 '엣지' 색상을 통일해 사용자의 만족감을 높였다. /삼성전자 제공

진화하는 해외직구

진순이 경제학

긴 불황에 신속형 소비자들이 국내에 없거나 국내에서는 비싼 물건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해외 직구'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해외 직구는 '해외 직접구매'의 줄임말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물건을 구입해 한국으로 배송을 받는 방법이다.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다. 해외 직구 시 전체 구매 가격이 200달러만 넘지 않으면 관세를 물지 않아 소비자는 상품 가격과 배송비만 내면 된다.

하지만 모든 해외 쇼핑몰이 우리나라까지 직접 배송해주는 것은 아니다. 또 배송을 해준다고 해도 해외 배송료가 비싸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최근 직구족의 구매를 대신해주는 배송대행 업체가 많이 생겨났다. 해외 쇼핑몰 상품을 현지에서 받아 국내 주소지로 전달해주는 식이다. 물론 수수료는 있다.

특히 미국 쇼핑몰이 인기인데, 미국의 경우 블랙프라이데이(미국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첫 금요일)를 시작으로 1월까지 최대 70% 이상 할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때를 잘 활용하면 평소 탐내왔던 비싼 제품을 싼 값에 살 수 있다. 최근에는 유럽과 일본을 제치고 타오바오와 같은 중국 인터넷 쇼핑몰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해외 직구로 살 수 있는 상품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수입차 부품을 비롯해 명품 옷, 신발, 가구, 건강식품, 이전 훈련자료까지 주문하기도 한다.

이어허브, 십팝 등은 우리말 자원이 될 뿐 아니라 국내 배송도 가능해 해외 직구에 서툰 초보자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jiw@

발바닥, 발가락 통증? 더 이상 참지마세요!

발바닥에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하거나,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하게 전기통하는 느낌이 든다면 지간신경종(몰톤씨신경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하는 지간신경종은 처음에는 발가락이 갈라지는 부분인 발바닥의 앞쪽에 무언가 이물질을 한 겹 붙여놓은 것처럼 느낌이 둔감하거나 마치 모래를 밟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감각이 이상하기도 한다. 가만히 있을 때에도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리고 심하면 통증마저 느껴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병원에서 엑스선을 찍어보고 허리가 원인인가 싶어 허리 MRI도 촬영하고, 혈관문제인가 싶어 혈관조영술을 해봐도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걷는 것마저 힘들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현대인의 발은 끊임없이 혹사당하고 있다

발은 신체의 모든 뼈 중 5분의 1이 몰려 있고 평생토록 지구의 4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움직인다. 최근 발바닥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는데, 통증은 곧 질병의 신호. 발의 작은 통증 하나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기도 한다.

예쁜 발='작은발' 이라는 통념이 아직도 남아있다. 특히 여성들은 발이 크면 미련해 보일까봐 발이 작고 날씬해 보이는 신발을 선호하는데 이런 신발을 애용하는 여성들은 발의 앞부분인 중족골과 발가락 신경에 생기는 지간신경종을 주의해야 한다.

지간신경종은 발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과도한 압박을 받거나 발가락 사이에서 눌려 붓는 질환을 말한다. 굽이 높은 구두를 신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굽이 높은 구두를 신으면 발가락 신경과 주변 조직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져서 몸무게 전체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발바닥의 앞쪽 부위가 저리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으로 중년 여성 분들에게 흔히 발견된다. 가끔 발바닥 통증을 허리쪽의 이상 때문인 것으로 오인해 병원으로 오는 환자도 제법 있다.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부산에서도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치료해

부산에서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등 족부관련질환을 전담하여 케어하는 족부클리닉을 운영중인 대한민국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몸을 지탱하는 받침대인 발은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오묘하게 움직이지만 어느 한 곳만 이상이 생겨도 보행에 필요한 균형을 잃고 연쇄적인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며 "발가락은 한 번 변형되면 다른 발가락을 변형시키고 무릎, 허리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변형과 통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손과 발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손가락의 움직임이 중요한 손과 달리 발은 체중을 부하하여 걷는 기능이기 때문에 보행을 편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 치료해야 하며 발이 불편하면 보행이 틀어지므로 무릎, 엉치, 척추에도 무리가 갈 수 있다.

디스크, 하지정맥류, 혈관장애 등으로 오인, 오랜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지간신경종은 매우 다양한 감각이상을 호소한다.

보통 가만히 있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다가 걷거나 딱딱한 바닥에 닿으면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린다. 특히 발가락과 발가락으로 연결되는 뼈 사이의 신경 부위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다. 이 부위는 발바닥중에서 체중의 압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마치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한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한 느낌이 뻗치고 때론 발이 시리거나 뜨겁다고 호소한다. 특히 상당수가 막연히 발이 저리다고 하는데 디스크나 하지정맥류, 혈관 장애 등으로 오인받아 MRI나 혈관검사 등을 해보지만 오랜 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신경을 잘라내지않고 절골술을 시행, 지간신경종의 원인을 제거한다

대한민국정형외과 이준호원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후된 지간신경종 자체를 절제하지 않고, 중족골 사이에 끼어서 붓게 된 지간신경의 압박을 감소시켜주는 절골술을 시행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간혹 시술 후 부종이나 통증, 부정유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형외과의원의 이준호 원장은 지간신경종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법을 시행하여 수술 부작용을 더 줄이고, 재발을 걱정도 덜어준다. 그러면서 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지며 의료보험이 적용되므로 환자부담도 덜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오랜 경험과 수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질환과 발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수부클리닉과 족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고운손과 편안한발을 위한 치료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IT서비스 해외공략 활발

삼성SDS 등 대기업 계열 SW진흥법 영향 글로벌화 행보 적극

국내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업계들이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올해부터 공공사업 참여가 제한되자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지난 7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사업구조 혁신을 단행한 데 이어 9월 삼성SNS 흡수합병을 발표하며 해외시장 확대를 계획 중이다.

특히 삼성SDS는 지난해 세계 최대 석유생산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사가 다란에 건설 중인 킹 압둘라지즈 세계문화센터의 디지털 공간 컨버전스(DSC) 사업을 수주하는 등 교육 및 의료시설, 보안, 교통 분야의 융·복합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타운 사업'으로 해외시장을 공략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2017년까지 해외 사업 매출 비중을 전체 매출의 60%까지 확대하고 전체 매출도 2배가량 성장시킬 계획이다.

LG CNS는 중국, 일본, 미주, 유럽,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 등 7개 지역을 거점 지역으로 선정하고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무인헬기 사업을 비롯해 대양광, 셋톱박스, 빅데이터 등 다분야에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사업 매출 비중도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SK C&C는 지난달 독일 와이어카드사와 근거리무선통신(NFC) 모바일커머스 사업 협력을 체결하고, 올 3월 합병한 SK엔카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한편 빅데이터 관련 사업에서도 글로벌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SK C&C는 그동안 해외시장에서 쌓아온 네트워크와 정보기술(IT) 부문의 결합을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IT 서비스업계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매출 및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삼성전자 UHD ZOO 전시회가 열린 에버랜드에서 어린이가 새끼 사자를 만지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기업들 '릴레이 마케팅' 먹히네

나이키=위런' 현대카드=슈퍼시리즈' 이미지 각인

원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업이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하는 '릴레이' 마케팅을 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마라톤 행사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세계 32개 도시에서 39만 5500명의 참가자들이 371km를 이어 달리는 '나이키 위 런'의 서울 대회인 '나이키 위 런 서울 10K'가 17일 개최된다.

국내에서 펼쳐지는 10km 단일 레이스로는 최대 규모인 3만명이 참가하는 '나이키 위 런 서울 10K' 대회는 2008년 휴먼레이스로 시작, 2010년 젊은이의 에너지와 도시 에너지를 결합한 '위 런' 대회로 한 층 강화됐다.

삼성전자는 풀HD보다 4배 더 디테일한 초고화질(UHD) TV를 앞세워 '삼성 UHD TV와 함께하는 멸종위기동물전 UHD ZOO' 전시회를 확대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서울 청담동에서 처음 개최된 '삼성 UHD TV와 함께하는 멸종위기동물전 UHD ZOO' 전시회는 한 달 동안 무려 1만5000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광고에 나오는 장면을 전시회에서 그대로 재현해 캠페인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고객에게 재미를 선사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삼성전자는 서울 전시에 이어 에버랜드의 로스트 밸리에 다시 한 번 UHD ZOO를 전시하고, 풀HD보다 4배 더 선명한 UHD 화질로 동물들의 털 한 올 한 올과 움직임 하나까지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달 열린 한국전자전 행사에서 전시회가 개최됐으며, 이달 대구에서 열리는 월드 디자인위크에서도 전시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슈퍼매치(스포츠), 슈퍼콘서트(문화공연), 슈퍼토크(강연), 컬처 프로젝트(모든 장르 총괄)로 구성된 현대카드의 슈퍼시리즈는 다양한 문화 영역을 고루 아우르며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고 있다.

슈퍼시리즈의 시작은 2005년 9월의 마리아 샤라포바와 비너스 윌리엄스의 대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많은 테니스 팬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큰 성공을 거두자 이후 스노보드, 댄스스포츠 등의 스포츠 경기를 꾸준히 기획하고 있다.

/백진훈기자 [illegible]

"미래의 건축물 내손으로 지어요" 1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2회 어린이가 만드는 미래건설산업 창의력 경진대회가 열린 가운데 2인1조로 참가한 학부모와 학생이 레고를 이용해 미래 건축물을 표현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뉴스

넥슨 3분기 매출 64% 증가

● 글로벌 온라인게임 업체 넥슨은 8일 2013년 3분기 실적(연결 기준)을 발표했다.

세계적인 불황에도 선방했다는 평가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399억 엔(약 4461억원)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162억 엔(약 1816억원),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50억 엔(약 901억원)을 기록했다.

피파 온라인3, 던전앤파이터와 같은 스테디셀러의 여전한 인기가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넥슨 측은 "중국의 안정적인 성과와 한국의 회복세로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성훈기자

분양훈풍, 믿어도 돼?

'집값 바닥' 오해 부르는 착시현상

최근 들어 조심스레 부동산 시장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분양 시장의 경우 신규 분양 물량이 늘고 미분양 아파트 수는 감소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지적이다.

◆ 될 만한 아파트 만 성공 – 분양 양극화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일반 분양된 아파트는 총 64개 단지, 4만9857가구다. 이는 2008년 이후 5년 만의 최대 실적이자 작년 같은 기간 공급된 2만4727가구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청약 성적도 좋았다. 지방에 비해 침체의 골이 깊었던 수도권에서조차 27개 분양 단지 중 11곳이 순위 내 마감됐을 정도다. 이 가운데 3개 단지는 최고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마감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지난 10월의 실적만 본다면 분양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에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회복세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달 분양 물량이 증가한 데는 이른 추석과 양도세 면제 혜택 연내 종료의 영향이 크다. 경기가 호전됐다는 판단하에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물량을 늘린 게 아닌 셈이다. 또 분양에 성공한 단지들도 대부분 서울 강남권이나 도심, 유망 택지지구에 위치해 있다.

김학권 세종코리아 대표는 "시장이 안 좋다고는 해도 입지가 좋은 단지들은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둬왔다"며 "최근 들어 순위 내 마감된 단지들이 바로 언제 공급해도 될 만한 아파트였다"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되는 아파트'를 제외한 단지들의 성적은 참담하기만 하다. 또 앞서 공급된 물량들도 여전히 저조한 계약률에 시달리고 있다.

◆감소하는 미분양, 알고보면 전세 전환

건설사들의 부담으로 불리는 인천, 김포, 고양, 용인 등의 미분양도 감소하고 있지만 이 역시 통계의 오류라는 목소리가 높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면서 일부 업체가 미분양 신고를 누락하고 있는 것.

현재 수도권에서 전세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계획 중인 아파트는 동부건설 '계양 센트레빌'을 비롯해 우미건설 '영종하늘도시 우미린', 한양 '한양수자인', GS건설 '영종 자이', 두산건설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한라건설 '김포 풍무그린 유보에트로' 등이 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겉으로 보이는 수치는 점점 시장이 회복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아지는 게 없는 상황"이라며 "청약 대기자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소신대로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pso5820@metroseoul.co.kr

BC카드, 그린교통포인트와 MOU

2700만 고객과 함께하는 BC카드가 그린교통포인트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교통안전공단과 지난 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린교통포인트서비스란, 친환경교통수단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서비스이다.

이번 MOU로 BC그린카드 회원들은 도보, 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 제공되는 그린교통포인트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적립해 사용할 수 있다. /박선옥기자

'한땀한땀의 예술' 롯데백화점은 14일까지 본점 2층에서 '페르시안 카펫' 테마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쿠션부터 의자, 카펫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이란 장인의 카펫 제작 시연도 보여준다. /롯데백화점 제공

NH카드, 지구촌사랑나눔에 기부

NH농협카드는 최근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지구촌학교를 찾아 (사)지구촌사랑나눔에 5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지구촌사랑나눔은 1992년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쉼터 운영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 중국 동포 등 이주민들의 인권 신장과 복지를 위해 힘써 오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이번 농협카드 공익기금은 (사)지구촌사랑나눔이 설립한 지구촌학교에 전달돼 교실 증축 및 옥상 개조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남양주 호평 타운하우스 '힐링수'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 한국도시개발(주)이 시행하는 '힐링수'가 분양 중이다.

전 세대 전용면적 85㎡ 이하로 이뤄진 63가구 규모의 타운하우스로, 텃밭, 조경 등 외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 자연친화적 단지다.

경춘선 평내호평역이 도보 5분 거리이며 46번 국도, 수석~호평 도시고속화도로 등의 도로망을 통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이마트, 호평체육문화센터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단지 내 골프연습장, 헬스장, 북카페, 세미나실 등의 커뮤니티센터를 갖췄다. 문의 031)465-9200 /박선옥기자

'럭비공 메론' 나왔어요 홈플러스는 10일 길쭉한 럭비 공모양을 닮아 일명 '럭비공 메론'으로 불리는 우즈베키스탄 골 메론의 판매에 들어갔다. 이 상품은 당도가 높아 겨울 과일 중에서도 별미로 꼽힌다. 가격은 한 통에 8500원(2㎏), 1만3000원(3㎏)이다. /홈플러스 제공

이상고온 탓 과일 출하시기 빨라져

"딸기, 올해는 11월이 제철"

올해 이상기후로 제철 과일의 출하 시기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의 경우 예년보다 이른 3~4월경에 찾아온 더위로 인해 전북 고창 완주지역의 4월 출하량이 80%가량 증가했다. 출하 시기도 2~3주가량 앞당겨졌다. 이로 인해 제철 과일을 판매하는 유통업계의 관련 행사도 덩달아 빨라졌다.

롯데마트가 올해 주요 과일 품목의 행사 전개 시기를 조사한 결과 제철 과일 행사 시기가 작년보다 2~3주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 대표 과일인 딸기의 경우 12월 중순이 제철로 알려져 있고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11월 말 즈음 출하되지만 올해는 9월 중순까지 이어진 늦더위에 딸기의 생육이 빨라져 경남 산청·진주 등에서 예년보다 2~3주가량 일찍 출하돼 벌써부터 딸기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정혜윤기자 jhy@

'쇼루밍족' 잡아야 산다

유통업계 모바일·홈쇼핑 앱 잇따라 출시

최근 모바일 쇼핑이 급성장하면서 유통업계가 모바일 시장을 강화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보고 모바일에서 구입하는 일명 '쇼루밍족'을 잡기 위해 관련 쇼핑 앱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G마켓이 운영하는 쇼핑몰 'G9'는 최근 모바일 전용 앱을 출시했다. 카테고리별 상품 담당자들이 선별한 아이템을 매일 오전 9시부터 판매하며, 고객들이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큐레이션 기능까지 더했다.

홈쇼핑 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GS샵은 스마트폰으로 TV 홈쇼핑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며 바로 주문할 수 있는 TV 홈쇼핑 앱을 내놨다. 현대홈쇼핑은 증강현실 기능을 적용한 'H코디' 앱을 운영 중인데, 옷 등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코디를 해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엄지족'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인터넷 기업 하나로드림도 최근 국내 최초 쇼루밍족을 위한 쇼핑 앱 '쇼핑백'을 선보였다.

쇼핑백은 국내외 인기 쇼핑 앱을 하나로 모은 쇼핑 플랫폼 서비스로 대부분의 쇼핑몰 세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입자 자신이 MD가 돼 다양한 콘셉트에 맞춰 나만의 쇼핑백을 만들어 남들과 공유할 수 있다. 백화점도 고객의 휴대전화를 직접 공략한다. 롯데백화점은 모바일 DM을 제작, 쇼핑 정보는 물론 각종 할인 쿠폰을 제공 중이다.

하나로드림의 최현미 이사는 "모바일 쇼핑은 성공하려면 고객의 니즈에 맞는 맞춤 서비스로 차별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sai@metroseoul.co.kr

TGI "오늘 스테이크 주문하면 파스타 공짜"

TGI 프라이데이스는 빼빼로데이를 맞아 오는 11일 뉴욕 스트립 스테이크 주문 시 파스타 전 메뉴 중 1가지를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펼친다.

11일 빼빼로데이 단 하루만 마련되는 특별 이벤트로 테이블당 뉴욕 스트립 스테이크 주문 시 TGI 프라이데이스의 파스타 9개 파스타 메뉴 중 1가지를 무료로 제공한다.

전국 매장에서 동시에 운영되고, 해당 메뉴는 제휴 할인이 불가능하며 테이블당 1회에 한정된다.

타 쿠폰 및 추가 메뉴에 대해 제휴 할인이 가능하며, 테이블당 1회에 한정된다. /김현정기자

육지로 떠밀려온 대형 선박 필리핀 중부 레이테주 타클로반시 해안가에 초대형 선박들이 떠밀려 올라온 가운데 10일(현지시간) 지역 주민들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필리핀 중남부 순간 최고 풍속 379㎞ 슈퍼 태풍 강타 '아비규환'

사망자만 1만명 넘을 듯

필리핀 중남부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슈퍼 태풍' 하이옌의 사망자가 최대 1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지역 경찰관은 "중부 타클로반에서만 사망자가 1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익사하거나 건물 더미에 깔려 숨졌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300~400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덧붙였다.

◆ "한국인 인명피해는 없어"

이번 태풍과 관련해 필리핀 현지의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은 현재까지 별다른 한국인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타클로반은 아비규환 그 자체다. 도로 곳곳에는 시신이 널려있고 공항 등 주요 건물과 시설들은 폐허로 변했다.

"먹거리를 들고 뛰어라" 태풍이 휩쓸고 간 쇼핑몰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타클로반시 시민들 /AP 연합뉴스

피해 현장을 둘러본 유엔 재해조사단장은 하이옌의 피해 규모가 20만 명 넘게 숨진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때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필리핀 당국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36개 주에서 약 428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34만2000명이 공공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 7개 지역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졌다. 특히 태풍이 몰고 온 폭풍 해일로 가옥이 대거 무너지고 산사태가 발생, 상당수 마을의 주민들은 통신이 두절된 채 고립된 상태다.

타클로반 지역에 투입된 군 관계자는 "도로가 무너져내려 통행하기가 어렵고 시신 수습을 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필리핀 군 당국은 태풍 피해 지역에 헬기를 동원해 구호 물자를 실어 나르는 등 본격적인 구호 활동에 들어갔다. 군 대변인은 1만5000여 명의 병력을 파견, 복구 및 구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일 AFP통신에 따르면 하이옌은 필리핀 기상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필리핀을 강타할 당시 순간 최고 풍속이 시속 379㎞ 정도였다. /김성미기자 seongmi@metroseoul.co.kr

미국·뉴질랜드 두 외팔 소녀 스카이프로 이은 '8년 우정'

한쪽 팔 없이 태어난 두 소녀가 국경을 넘어 8년간 온라인으로 우정을 쌓아 화제를 낳고 있다고 폭스뉴스 등 외신이 최근 전했다.

미국 인디애나주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살고 있는 세라 스팀프와 케이지 테일러. 두 사람은 선천적 장애로 한쪽 팔이 없다.

소녀들의 인연은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시작됐다. 세라의 어머니는 임신 중 딸에 한쪽 팔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백방으로 찾은 끝에 케이지의 어머니를 알게 됐다.

두 어머니는 e메일을 주고 받으며 딸들이 험한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모전여전! 어머니의 우정은 딸의 우정으로 이어졌다.

아이들은 스카이프 화상 통화로 '한쪽 팔 없이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한쪽 팔로 머리는 어떻게 손질하는지,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됐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처음 만난 케이지 테일러(왼쪽)와 세라 스팀프 /iconews.net.nz

8년간 아름다운 우정을 쌓아온 소녀들의 사연은 스카이프 측의 화상 채팅 경험담 공모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특히 스카이프 측은 지난여름 소녀들의 깜짝 만남을 주선하고 이 만남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눈길을 끌었다. /조선미기자

호주서 아이패드 에어 폭발 판매 대리점 고객 대피소동

호주에서 애플의 최신 태블릿PC 아이패드 에어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호주 일간지 헤럴드선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의 보다폰 대리점에서 아이패드 에어가 폭발해 매장 내 고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목격자에 따르면 매장에 전시된 아이패드 에어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어올라 연기가 매장을 가득 채웠다. 매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불꽃과 연기는 바로 진화됐으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본사 직원을 해당 점포에 보내 문제가 된 제품을 수거해 원인 규명에 착수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한 호주 언론의 취재에 답변을 거부했다.

아이패드 에어 폭발 소식에 네티즌들은 "왜 폭발한 걸까" "작동 중에 폭발했다면 손이 다칠 수도 있겠네"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쉐보레 스파크 EV · 기아 레이 EV · 르노삼성 SM3 Z.E

뉴스&뉴스

푸조 308 스포티움 한정 판매

● 한불모터스가 푸조 308 스포티움(Sportium)을 국내시장에 출시했다. 308 스포티움은 '더욱 나의 스포티하게 업그레이드한 모델로, 국내에 300대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308 스포티움은 시트와 스티어링 휠에 레드 컬러 스티칭을 페달과 도어 실(sill)에는 알루미늄을 더했다. 오디오는 기존 시스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JVC 오디오 헤드를 탑재했다. 여기에 차량의 프런트 그릴에는 크롬을 더하고, 차량의 사이드에는 스포티움 배지를 더했다. 내비게이션을 추가로 탑재하면서도 가격은 기존 308과 같은 3240만원이다. /김교식기자

포드 환경프로 후원대상 선발

● 포드코리아가 포드 환경 프로그램 행사를 개최했다.

10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 따르면 역대 및 올해 후원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네트워크숍이 최근 열렸다. 이날 총 5만 달러를 지원받을 포드 환경 프로그램 최종 후원 대상자도 발표됐다. /김성훈기자 unique@

지자체별 최대 2300만원 지원

국산 전기차 3종 장단점 비교

국내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일반 판매가 시작됐다. 쉐보레 스파크 EV와 기아 레이 EV, 르노삼성 SM3 Z.E.는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쉐보레 스파크 EV, 경쟁차 중 최고 속도

스파크 EV의 최대 강점은 경쟁차 중 가속성능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이다. 최고 출력 143마력(105kW), 최대 토크 57.4kg·m의 모터를 장착, 0→100km/h 가속시간 8.5초를 기록한다. 최고 시속 역시 경쟁차 중 가장 빠른 시속 145km다.

경쟁사에서 약점으로 지목하는 부분은 급속충전 방식이다. 한국GM의 '타입1 콤보'는 국내 표준 인증을 받지 못한 방식이어서 현재 국내에 깔려있는 직류(DC) 급속충전기는 이용할 수 없다.

스파크 EV의 가격은 3990만원이고 지자체에 따라 최대 2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아 레이 EV-급속충전 편의성 탁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출시돼 정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많이 보급됐다. 최고 출력은 68마력(50kW), 최대 토크는 17.0kg·m로 스파크 EV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0→100km/h 가속 시간은 15.9초. 그러나 실제로 단 레보딩 체감 속도가 빠르다.

레이 EV는 박스형 차체 구조여서 실내를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최고 시속은 130km까지 나온다.

가장 큰 약점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1km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신 국내 표준 인증을 받은 DC 급속충전기를 경쟁차 중 유일하게 쓸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가격은 4500만원이며 환경부 지침에 따라 150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

◆르노삼성 SM3 Z.E.-퀵 드롭 배터리 교체 편리

국내 첫 준중형 전기차로, 배터리를 탑재하기 위해 기존 SM3보다 차체 뒤쪽을 130mm 늘렸다. SM3 Z.E.는 성능이 개선된 LG화학의 리튬이온배터리를 장착했다.

큰 차체에 걸맞게 경쟁사 제품 중 가장 큰 24kW의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고 출력은 95마력(70kW), 최대 토크는 23.1kg·m다. 최고 시속은 135km.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123km다.

이 차는 건전지를 교환하듯 다 쓴 배터리를 빼고 充충된 배터리를 장착하는 퀵 드롭 방식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김성훈기자

01
2013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02
2012 부산지역 전문대학 전체
취업률1위, 전국4위
(가 그룹 졸업자 2,000명 이상)
부산과학
기술대학교
미래지향적
인재교육의 산실!
BIST만의 차별화가 경쟁력이다!
03
'국가장학금
2유형' 1인당
평균수혜금액
전국7위
04
글로벌 전문교육 실현
05
고려대학교 무시험 편입학 대학 선정

<佛 피아니즘 대표자>

티보데 12년만에 한국 온다

시적 감성+놀라운 테크닉 겸비 … 서울시향 심포니 시리즈 15일 개최

서울시립교향악단이 1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티보데의 거슈윈 – 하나금융그룹이 함께하는 서울시향의 심포니 시리즈 IV'를 연다.

이번 무대에서는 프랑스 피아니즘의 대표자로 꼽히는 장이브 티보데(사진)가 12년 만에 내한해 재즈에 바탕을 둔 거슈윈의 피아노 협주곡 F장조를 협연한다. 서울시향은 성시연 부지휘자의 지휘 아래 드뷔시의 '이베리아'와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7번을 연주한다.

티보데는 시적인 감수성과 놀라운 테크닉을 겸비한 아티스트로 정평이 나 있다. 드뷔시와 라벨, 사티 등 프랑스 음악부터 슈만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다. 디아파송 황금상, 쇼크상, 그라머폰상, 에코상 등 주요 음반상의 수상자 목록을 휩쓸기도 했다.

그가 이번에 연주할 곡은 거슈윈이 남긴 유일한 피아노 협주곡으로, 김연아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프리스케이팅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해 더욱 잘 알려져 있다. 티보데는 2010년 거슈윈 음반을 발매한 당시 평단으로부터 "작품을 새로운 각도에서 만나게 하는 신선한 연주"라는 호평을 받았다.

성시연은 그동안 쇼스타코비치·버르토크·무소륵스키 등 화려한 교향곡뿐만 아니라 말러·슈베르트 등 전통 독일 음악으로 자신의 음악적 깊이를 유감없이 선보여왔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이베리아반도의 눈부신 강렬함을 기하학적으로 표현된 '이베리아'를 연주한 후 마지막으로 정열적인 느낌의 드보르자크의 곡을 신선한 해석으로 들려준다.

티켓 가격은 1만~6만원. 문의 1588-1210

/박선영기자

★ 보르코시건 시리즈 ★

명예의 조각들

49화 글·그림 이기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Global Leader
www.hhi.co.kr
기술이 신념을 품을 때
기술은 마침내 작품이 됩니다.
현대중공업
기술로 세계를 봅니다
드릴십(Drillship)
미래를 개척하는
현대중공업

목·허리·어깨 통증 잡는 신개념 도수치료

잘못된 자세와 생활습관 인한 '현대인 척추·관절 고질병'
수술 필요없는 차별화된 치료법 · 1대4 전담팀이 집중관리

요즘 영화 개봉과 함께 파격적인 연기 변신으로 연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는 영화배우 H씨. 건강하고 활동적인 이미지와 달리 평소에 지속적인 허리 통증과 오른쪽 다리 저림 현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던 그는 지인의 추천으로 강남초이스병원에 내원해 추간판탈출증 및 골반 불균형으로 고주파 내시경 시술을 받게 됐다.

조성태 병원장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통해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생기고, 디스크가 흘러내려 요추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장시간의 잘못된 자세로 인한 골반의 불균형과 지속적인 허리의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조성태 병원장은 "고주파 내시경 시술을 성공리에 마쳤지만,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디스크 위험에 또다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불안정한 자세 및 나쁜 습관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도수치료의 디스크의 압력을 낮춰줄 수 있는 무중력 감압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유했다.

강남초이스병원의 특화되고 차별화된 도수치료와 무중력 감압치료 덕에 H씨는 건강을 되찾고 차기작을 준비 중이다.

의 경우 심한 두통과 함께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통증에 양쪽 어깨의 높이가 심하게 다른 증상까지 보였다. 고민 끝에 강남초이스병원을 찾은 결과 '일자목 및 척추측만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척추측만증은 잘못된 자세나 습관으로 인해 척추가 변형을 일으켜 휘어지는 병이다.

강남초이스병원 도수감압치료센터 한우영 과장은 "일자목 및 측만증은 단순히 척추뼈의 변형이 아니라 몸 전체의 밸런스와 연관된 문제로 이차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질환"이라며 "잘못된 자세의 교정, 나쁜 습관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전문 치료 시스템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양은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의 특화되고 차별화된 도수치료와 3차원적 운동치료를 통해 건강하고 바른 척추와 함께 자신감도 되찾아가고 있다.

도수치료란 전문의의 진단에 의거, 의학적인 전문 지식을 갖춘 치료사가 근막통증 증후군과 이와 연관된 근 골격계의 불균형과 신경성 기능장애를 치료하는 전문적인 방법으로 환자의 통증 완화 및 신체 기능의 개선을 위해 손을 도구로 사용해 치료한다. 현재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선진국형 치료다.

강남초이스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1대4 원스톱치료 시스템은 척추나 관절에 문제가 생긴 환자 한명당 담당주치의, 도수전문치료사, 통증관리치료사, 재활운동전문가 등 각 1명이 전담팀을 이뤄 운영된다.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는 맞춤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다. 이는 다른 병원들과는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환자 중심의 맞춤 전문 치료로서 척추 관절 치료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

조성태 원장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만성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무업무, 스마트폰이나 넷북 등 소형 IT기기의 보급으로 건강한 척추를 지키기 더욱 어려워진 시대가 됐다.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만이 통증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라며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강남초이스병원만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1대4 원스톱치료 시스템을 통해여 보다 많은 환자들이 척추 관절의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의 준비와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강남초이스병원은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본원)과 홍대입구역(분점)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비수술 척추 관절 전문 치료 센터를 운영중이다.

<강남초이스병원>

– 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875-8번지(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도보 3분) 연락처: 02)875-2200

/황재용기자

대게 필요한 무료 건강강좌 스케줄 체크하세요

대학병원들이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무료 건강강좌를 잇따라 개최한다.

우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이 '눈 검진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건강강좌를 마련했다.

11일 병원 4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강좌는 대한안과학회에서 지정한 눈의 날(11월 11일)을 맞이해 눈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강좌 주요 내용은 ▲굴절 이상 및 약시, 사시 ▲안과 검진의 중요성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 등이다.

또 경희대병원 비뇨기과는 19일 병원 정보센터동 제1 세미나실에서 '2013 블루 캠페인' 전립선암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남성암 발생 증가율 1위인 전립선암을 주제로 마련되는 강좌는 ▲전립선암의 진단과 치료 ▲전립선암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 ▲비뇨기클리닉 등의 전문가 강연과 참가자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또 참가자 전원에게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와 상담, 그리고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중앙대병원도 19일 병원 중앙관 4층 동교홀에서 척추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star bag

음악활동 담은 다큐 홍보

인기 밴드 **씨엔블루** 가 음악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홍보 활동에 나선다.

이들은 다음달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더 스토리 오브 씨엔블루/네버 스톱'의 프리미어 시사회에 참가해 무대인사를 소화한다. 내년 1월 17일 일본 개봉을 앞둔 이 영화는 씨엔블루의 월드투어, 서울 기숙사 생활, 일본 음악 활동 등을 담았다.

'뉴스데스크' 진행 맡는다

박상권 권소영(왼쪽부터) 앵커가 18일부터 MBC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 '뉴스데스크'를 진행한다.

1997년 MBC 보도국에 입사한 박 앵커는 사회부와 경제부를 거치고, 2007년부터 4년간 '뉴스투데이'를 진행하면서 신선한 클로징 멘트와 쌍방향 뉴스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 앵커는 2년 차 아나운서로 3월부터 주말 '뉴스데스크'를 진행했다.

데뷔 29년 첫 사제의 연

가수 **주현미**가 데뷔 29년 만에 제자를 발굴했다.

9일 방영된 JTBC '히든싱어 2' 주현미 편에서 여고생 박아란양이 '눈물의 부르스' 등 부르며 "(주현미) 선생님께 꼭 지도받고 싶다"고 밝히자, 주현미는 "기꺼이 받아주겠다.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욕심 나는 친구다"고 말해 사제의 연이 맺어졌다.

신임 국립발레단장 유력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이 새 국립발레단장에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강수진은 올해 임기가 끝나는 최태지 현 국립발레단장의 뒤를 이을 새 수장으로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국립발레단장은 검증 과정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강수진은 현재 독일 슈투트가르트발레단에서 활동 중이다.

"음악적 성장통 랩에 담았죠"

'배인'으로 3년만에 컴백 언터쳐블

달라졌다.

3년 만에 컴백한 힙합듀오 언터쳐블(슬리피(29)·디액션(28))이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담아낸 네 번째 미니앨범 '트립'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특히 타이틀곡 '배인'을 비롯한 수록곡에 자신들의 삶과 생각을 담아냈다. 오랜 공백 기간을 거쳐 새로운 앨범으로 컴백한 언터쳐블은 "처음으로 우리 음악을 완벽하게 담아냈다"고 앨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진정성 안고 돌아온 힙합듀오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배인'에서 언터쳐블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는 듯한 현실적인 가사를 담아냈다. '배인'은 '향기가 배다', '습관이 배다' 등 무언가에 스며들어 익숙해진다는 의미와 영어로 '혈관'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디액션은 "앨범 전곡에 직접 참여하며 음악을 통해 우리들의 경험과 생각, 내적 성장의 기록을 하나씩 담아냈다"며 "이별 노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랜 기간 앨범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곡을 듣고 트랙을 구성했다. 우리 의견이 많이 들어가서 언터쳐블의 취향과 색깔이 확실히 반영된 결과물이 나왔다"고 자신했다.

이번 앨범에는 '트립', '노 메이크 업', '배인', '킵 인 터치', '연락 좀 자주해' 등 힙합 마니아들부터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곡들이 담겨있다.

슬리피는 "정규앨범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곡을 두고 작업을 했다. 힙합이라는 한 가지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담아냈다"고 말했다.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언터쳐블은 이번 앨범의 곡 작업은 물론 뮤직비디오와 의상 콘셉트 등에 자신들의 생각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소속사의 파격적인 배려 덕분이다. 언터쳐블은 "앨범 제작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가수들의 의견이 100% 반영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한 뒤 "그런데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속사 대표님이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봐라'는 말씀을 하셨다. 덕분에 우리만의 생각을 완벽하게 표현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언터쳐블에 대한 소속사의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슬리피는 "다소 무거운 남부 힙합 장르부터 고급스러운 뉴욕 이스트 스타일, 흥이 넘치는 컨츄리 등을 풍부하게 담았다. 5개 트랙이 다양한 빛깔의 힙합 음악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디액션은 "앨범 작업부터 마지막 편곡 과정까지 모든 게 마음에 든다. 1·2번 트랙의 경우 19금 판정을 받았지만 마니아들을 위한 선물이다"고 말했다.

또 방송과 무대 위에서 언터쳐블의 모습은 매번 바뀐다.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심산이다.

5개 트랙 5가지 힙합 표현 · 뮤비부터 의상까지 생각대로
대중적인 곡도 수록 · 안무 틀 따로없어 그날그날 '필' 따라

슬리피는 "따로 안무를 정하지 않고 무대와 객석의 반응 등 그날 노래를 부르면서 받은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것"이라며 "매번 새로운 무대라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언터쳐블은 11일 정오 전곡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정선우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TS엔터테인먼트 제공 디자인/[illegible]

檢, 이수근·탁재훈 불법 도박 혐의 포착

이수근, '1박2일' 등 방송 활동중단 예정

개그맨 이수근(사진 왼쪽)과 방송인 탁재훈(오른쪽)이 수억 원 대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10일 SBS 8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수근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수근은 프리미어리그 같은 해외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예상 승리팀을 고르는 방식을 통해 한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배당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탁재훈도 수억 원대 도박을 벌인 혐의가 포착돼 이수근보다 먼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일이 알려지자 이수근 측은 혐의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탁재훈 측은 "사실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이들 말고도 유명 연예인 여러 명이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방송인 김용만이 비슷한 사이트를 통해 10억 원대 불법 도박을 한 혐의가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진현기자 [illegible]

tvN '응답하라 1994'가 성나정(고아라)의 미래 남편에 대한 궁금증을 키워가는 가운데 칠봉이(유연석)·성나정·쓰레기(정우) 삼각관계도 긴장감을 더해가고 있다.

안방은 지금 '응사앓이'중

'응사앓이'가 수달 안방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tvN 금토드라마 '응답하라 1994'가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인기 고공 행진을 벌이고 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9일 방송된 8회는 평균 시청률 7.1% 순간 최고 시청률 8.6%를 기록했다. 케이블·위성·IPTV 통합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전날 방송된 7회보다 평균 시청률 0.9%포인트, 최고 시청률 1.3%포인트나 상승했다.

특히 '응칠앓이'라는 신조어를 남기며 복고 열풍을 일으켰던 전작 '응답하라 1997'이 마지막 회에서 자체 최고인 평균 7.6%와 순간 최고 9.5%의 시청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994'는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조만간 '1997'의 기록을 돌파할 전망이다.

남녀 10~40대 연령층에서 모두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폭넓은 세대를 아울렀다.

이 중 여자 10대에서 최고 시청률이 11.1%까지 치솟아 드라마의 인기 요인이 과거에 대한 향수만은 아님을 입증했다.

매회 자체시청률 경신
10대 여성팬들도 많아

·

정우·고아라 눈도장 꽉!
유연석 신드롬도 예고

◆스타 속속 탄생 '광고계도 들썩'

드라마의 인기로 인해 화제의 인물도 속속 탄생하고 있다.

극의 중심을 잡는 정우와 고아라가 이번 작품으로 연기력과 대중성을 확고히 알렸다.

9일 방송된 7회에서는 유연석이 칠봉이의 로맨티가이란 오가는 이석 매력으로 칠봉이 신드롬을 예고했다. 그는 근육질 몸매를 드러내며 부드러운 이미지 속에 가려진 거친 남성미로 여성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김성균은 8회 방송 이후 '응사요정'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다. 순수한 삼천포 총각을 연기하는 그는 몸이 불편한 조윤진(민도희)의 어머니를 보살피는 따뜻한 심성으로 조윤진은 물론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영화에서 주로 깡패와 살인자 역으로 출연했던 그는 반전 매력으로 광고계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또 '응칠소녀'로 불리는 민도희는 극중 거친 이미지와 달리 일상의 귀여운 모습으로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고, 해태 역의 손호준은 동방신기의 유노윤호와 절친한 고향 선후배 사이로 관심을 모았다.

/용순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가왕' 조용필 문화훈장 받는다

가수 조용필(사진)이 올해 가왕 신드롬을 일으킨 데 이어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고 영예인 문화훈장의 은관훈장 수훈자로 선정됐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조용필은 수많은 국민 애창곡을 발표해왔고 올해 발표한 19집 '헬로'를 통해 전 세대와 소통이 가능한 음악을 시도하면서 대중음악계에 새로운 반향을 이끌어냈다.

18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시상식에는 조용필 외에 올해 코미디언 인생 60년을 맞이한 구봉서, 사회봉사와 문화 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배우 안성기, 올해 은퇴 공연으로 55년간의 음악 인생을 마무리한 패티김이 은관훈장을 받는다.

보관문화훈장 수훈자는 김점수 작가, 성우 이혜경으로 결정됐다. 대통령표창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고 최헌,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영화감독 류승완, 배우 이정길, 선우용여, 연주자 장성조, 드라마 제작자 송병준 등이 수상한다.

국무총리표창은 배우 김갑수, 가수 이승환·김목경, 코미디언 최양락·김지선, 성우 박일, 연주자 이수연, 프로듀서 서수민 등 8명이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은 배우 장서희·신현준, 가수 이루·시크릿·씨스타, 코미디언 김준호, 모델 고은경 등 7팀에게 돌아간다.

/용순호기자

MC 교체 논란 '진품명품' 정상방송 재개

MC 교체 건으로 녹화 중단 파행을 빚었던 KBS1 'TV쇼 진품명품'이 10일 정상 방영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새 MC로 발탁된 김동우(사진) KBS 아나운서가 전문감정위원들, 김정자·윤문식·김지연 등 연예인 감정단과 함께 방송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아나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공부하면서 여러분을 모시겠다. 열심히 할 테니 잘 부탁드린다"고 진행 소감을 밝혔다.

앞서 이 프로그램은 지난달 말 윤인구 아나운서에서 김 아나운서로 MC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제작진과 시속의 의견 대립으로 녹화가 불발돼 3일 방송이 결방됐다.

/박진현기자

〈자유여행만들기〉

'항공+호텔'로 예약하는 당신에게 드리는 통 큰 이벤트 1탄

항공+호텔 에서 예약하면 결제금액별 최대 10만원 추가적립 혜택!

행사기간 10월 14일~11월 15일

행사조건

1. 통합예약코드에 항공&호텔과 함께 예약 후 결제 완료시 적용됩니다
2. 마일리지 적립은 하나투어 마일리지 회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3. 마일리지 추가적립은 11월말에 일괄 지급됩니다.
4. 5만원이상의 마일리지 적립은 제세공과금 22%를 제한 금액이 적립됩니다

결제금액	혜택
1백만원이하 결제시	10,000 마일리지 추가적립
1백만원이상 3백만원미만 결제시	20,000 마일리지 추가적립
3백만원이상 5백만원미만 결제시	50,000 마일리지 추가적립
5백만원이상 결제시	100,000 마일리지 추가적립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66-0034

www.hanatourist.com

일교차 걱정없는 '무균종이팩' 음료

환절기 건강 돕는 식품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늦가을에는 환절기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신진대사 능력 저하로 떨어진 위장 기능과 추위로 외출이나 운동을 삼가며 줄어든 활동량으로 인해 소화불량, 변비·설사 등 위장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빈번히 발생하는 위장 장애를 완화하고, 늦가을에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돕는 스마트한 식품들을 소개한다.

소화불량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꿀물로 위의 통증을 달랜 뒤 미음 등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해 소화기관을 쉬게 해야 한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 음식은 위점막 혈관을 수축시켜 소화 흡수를 저해하니 지양하는 것이 좋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도 소화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 속이 거북할 때는 소화를 촉진하는 매실액을 희석해 마시고, 속이 쓰릴 때는 위점막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비타민U(메틸메티오닌설포늄)와 상처 난 점막에 지혈 작용을 하는 비타민 K를 함유한 양배추로 즙을 내 먹으면 속을 한결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변비에는 두유가 도움이 된다. 콩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대장의 수분을 흡수해 배변 활동을 돕고 음식물에 포함된 포화지방산을 흡착해 체외로 배설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자극 없이 장의 운동을 촉진해 쾌변에 대한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두유 속 프리바이오틱스인 대두 올리고당은 부패 균 및 병원성 균의 생육을 억제하는 비피더스균의 먹이가 돼 대장 건강도 챙겨준다.

기온이 떨어지면 식품안전에 소홀하기 쉽다. 하지만 아침저녁은 쌀쌀해도 낮 기온은 높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비한 철저한 음식물 관리가 필요하다.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외출 시 음식을 준비할 때에는 신선도와 원재료 고유의 맛과 영양을 잘 보존하는 기능성 포장용기 식품을 선택해야 한다.

일례로 야외 활동이나 캠핑 시에는 무균 종이팩에 담긴 음료를 챙겨가면 좋다. 6겹으로 이루어진 무균 종이팩 음료는 스웨덴 기업 테트라팩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균 기술이 적용돼 상온에서도 방부제나 첨가제 없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김형숙 교수(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올 김장 버무릴 맛 나네

4인가족 비용 17만4000원 지난해보다 21% 감소하고 보관용기부터 양념류까지 김장철 할인 행사도 풍성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주부들이 배추를 비롯한 김장 재료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17만4000원 선으로 작년 21만9000원에 비해 약 21%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김장 재료는 물론이고 보쌈고기, 기능성 밀폐용기 등 관련 업체들의 마케팅이 한창이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협중앙회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농협 유통 하나로클럽 마트 21개 점에서 보쌈용으로 좋은 국산 돼지고기 한돈 3000마리가량을 최대 61%까지 할인한다. 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김장의 꽃 보쌈, 맛있는 보쌈 비결' 3종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한돈닷컴 홈페이지에서 펼친다. 영상 내용을 스크랩한 후 해당 페이지 인터넷주소(URL)과 영상 후기를 댓글로 남기기, 내가 생각하는 맛있는 보쌈 부위 댓글로 남기기, 나만의 한돈 보쌈 요리 공유하기 등의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다.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는 한돈 앞다리살(100g), 20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한돈 웰빙 부위를 증정한다.

유리 밀폐용기 전문기업인 삼광글라스는 온라인 쇼핑몰 '유하스몰'에서 김치 보관용으로 활용하기 좋은 밴디점 등 일부 품목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또 공식 블로그 '힐링 다이어리'를 통해 김장철을 대비해 주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김장 공감'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 댓글 참여자 중 10명을 추첨해 김장철 활용도가 높은 글라스락 펜디형을 증정한다.

배추는 물론 부가 재료 준비, 손질 및 절임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김장. 바쁜 워킹맘들을 위해 롯데닷컴의 기획전도 참고하면 좋다. 오는 29일까지 마련되는 '김장나전' 에선 절임배추와 생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을 할인 판매한다. 해남 절임배추 20kg (배추 7~10포기, 2만4800원)과 HACCP 인증을 받아 더욱 믿을 수 있는 '해썹 인증 안전식품 으뜸영양 청결 태양초 국내산 고춧가루 500g (1만2900원)'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기획전에선 무안 양파, 고흥 마늘 등 각 지방의 대표 농산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

/김○○기자 ○○○@metroseoul.co.kr

콘래드 서울 1주년 "1원 커피 쏩니다" 콘래드 서울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 앞 광장에서 1원 커피를 선보였다. 호텔 측은 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매일 오후 1시에 선착순 100명에게 커피를 1원에 제공한다. /콘래드 서울 제공

KYJ 투어챔피언십 허인회 우승

타이틀스폰서 김영주골프 올시즌 男女대회 동시 후원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롯데스카이힐제주 컨트리클럽 밀오션코스(파72·6983야드)에서 개최된 '헤럴드 KYJ 투어챔피언십' (총 상금 3억원, 우승 상금 6000만원)에서 실력과 외모를 겸비한 '4차원 꽃미남' 허인회(26)가 5년4개월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시즌 마지막 투어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환상적인 날씨, 스타 플레이어들의 빅매치 등으로 골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성공적인 대회로 기록됐다.

상금왕과 대상 수상자가 결정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제주 출신의 강성훈과 류현우의 상금왕 싸움과 류현우, 김도훈, 김태훈, 김형태 등 5~6명이 접전을 벌이는 대상 경쟁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허인회는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 4개로 1언더파 71타를 치며 합계 12언더파 276타로 최준우, 김형태, 김기환의 추격을 4타 차로 밀어내고 시즌 첫 승이자 통산 2승을 달성했다. 올해 상금왕은 조현선수 자격으로 2승을 올린 강성훈에게 돌아갔으며 류현우는 KPGA 대상 수상자(3565포인트)로 확정됐다.

허인회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보이고 있다. /KYJ 김영주골프 제공

KYJ 김영주골프는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양평TPC 골프클럽에서 개최된 KLPGA투어 'MBN 김영주골프 여자오픈'(총 상금 5억원, 우승 상금 1억원)에 이어 KPGA투어 '헤럴드 KYJ 투어챔피언십'을 개최하며 타이틀 스폰서로서는 최초로 한 시즌에 남녀 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기록을 남겼다. 또 KYJ 김영주골프는 매년 KLPGA 타이틀 스폰서 활동 및 선수 후원 등을 통해 대한민국 골프 발전과 대중화, 골프웨어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기자

풀무원 '천연 엽산 달걀 요리 대회'

풀무원이 일본에서 엽산 캠페인을 펼치는 일본 민간단체와 함께 필수 비타민 엽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요리대회를 열었다.

풀무원식품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일본의 시민단체인 '엽산과 모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모임'과 공동으로 '풀무원 목초란과 함께하는 천연 엽산 달걀 요리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행사는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한 엽산 섭취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엽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품 중 흡수율이 가장 높은 천연 엽산 달걀을 통해 엽산 섭취를 장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대회는 온라인 예선전을 통과한 주부 21팀, 조리학과 대학생 3팀, 일본 대학 1팀 등 총 25팀이 참가했으며 국내 유일 천연 엽산 달걀인 '풀무원 목초란'을 활용해 달걀 샐러드 김밥, 달걀 사골 지 리소토, 매운 달걀 볶음 등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다.

/○○○기자

동아오츠카 온음료 리뉴얼

동아오츠카가 온음료 브랜드 겨울나기 꿀과레몬 선물세트의 디자인 리뉴얼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패키지 전반에 따뜻한 색감과 부드러운 곡선 이미지를 강조해 전통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동시에 살렸다.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해 박스 일체형 종이 손잡이에서 끈을 활용한 고급형 박스로 교체했다. /○○○기자

'인터넷 안보' 더욱 강화해야

정론직설
유병철
<언론인>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심판을 받는 데 이어 종북 인터넷 신문 자주민보에 대한 등록 취소 청구가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는 '자주민보에 대한 등록 취소 청구의 건'을 지난 4일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자주민보는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진보적 인터넷 신문'이라고 지칭한 매체다.

이 신문은 북한의 3대 세습을 미화하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기사와 기고문을 수차례 실어 종북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 등으로 삭제한 이 신문의 게재물만 43건에 이른다. 지난 5월 대법원은 북한 공작원 김모씨와 수차례 비밀 교신을 한 혐의로 자주민보 전 대표 이모(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신문은 발행인을 바꿔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왔다.

사실 인터넷상에는 종북·친북 사이트가 판을 치고 있다. 더욱이 아무런 제재나 여과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북한 찬양글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다. 심지어 공식적인 사이트라 해도 반국가 사이트가 무려 79개나 지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은 종북·친북 활동의 천국이나 다름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물론 우리 국민들의 수준으로 보아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호기심 이상의 자극과 영향을 주고 있다. 가뜩이나 역사왜곡으로 국가관이 흔들리고 있는 판에 이들의 활동으로 그야말로 안보불감증을 증폭시킴은 물론 국민 정서에 큰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관계 당국에서도 이러한 점을 우려해 단속하고 경고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발에 부딪혀 유야무야한 상황이다. 뒤늦게나마 이번에 자주민보에 대해 등록을 취소한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관계 당국은 이기에 그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친북·종북 성향의 반국가 사이트를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친북 성향 인사나 단체로부터 많은 저항도 따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것인가?

지금 북한은 선군정치로 핵 개발에 여념이 없고 언제 대남 도발을 해올지 모르는 집단이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사이버전을 핵·미사일과 함께 3대 전쟁 수단으로 규정하고 사이버전을 인민군의 '만능보검'이라 칭하면서 사이버 전투 역량을 극대화하라는 지침을 군부에 내릴 정도다. 이러한 판에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상의 안보를 포기한다면 큰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국경 넘은 표절 논란

뉴스룸에서
유순호
<연예스포츠부 차장>

올해 가요계에도 유명 가수들의 표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프라이머리에 대한 의혹은 앞선 논란들과 달리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MBC '무한도전' '자유로 가요제'에서 공개한 '아이 갓 시'는 출시와 동시에 음원차트 정상을 휩쓸었지만 쏟아지는 유사성 의혹을 받았다. 표절의 대상이 된 것으로 의심받는 곡을 부른 카로 에메랄드 측이 구체적으로 유사점들을 지적하고 나서며 문제는 더욱 확산됐다.

급기야 네덜란드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했고, 국내 한 대중문화 전문가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표절"이라고까지 단정지었다.

이번 사태의 여파는 프라이머리의 다른 곡으로까지 퍼져 그가 작곡한 박지윤의 '미스터리', 1년 전 발표한 '해피엔딩'도 의혹을 받고 있다. 카로 에메랄드 측은 이들 곡도 자신들의 여러 곡과 지나치게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프라이머리는 올해 가요계의 주요 트렌드인 힙합의 대중화에 앞장선 천재 뮤지션으로 불려왔다. 유희열은 "1960~80년대 리듬을 한국에서 제일 잘 찍는다"며 극찬했고, 신승훈은 "장르에 정확히 맞는 사운드를 구현할 줄 안다"며 그의 음악 실력에 놀라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베테랑 싱어송라이터들의 찬사를 받는 이른바 선수들이 인정한 선수가 섣불리 다른 음악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더욱이 카로 에메랄드는 네덜란드 최고의 신예 여가수이자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다. 이런 유명인의 최근 발표곡들만 꾸러미로 활용한다는 것은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웬만한 배짱으로는 시도할 수 없는 무모한 도전이다.

논란은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프라이머리 측 입장에는 진전이 없다. 소속사는 "레트로 스윙이라는 장르의 유사성 때문에 온 해프닝이다. 악기 사용 등이 유사해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표절은 절대 아니다"는 초기 해명뿐이다.

최고 수준의 뮤지션이라면 간략해버린 '장르의 유사성'이라는 말로는 터무니 부족하다. 전문가다운 보다 구체적이고 이해 가능한 설명이 필요하다.

'무한도전'도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가요제 공연 준비와 참가곡 제작 과정까지 상세히 방송에 소개하며 시청률 상승에 이용했다. 한 작곡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1등 프로그램'이 만든 1위 음악이 국경을 넘는 논란을 빚고 있다면 명성과 위상에 걸맞은 책임 있는 해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포토프리즘 **"다시 일하고 싶다"**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리스타트 잡 페어-다시 일터로'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한낮 체감온도가 5도 아래에 머무는 쌀쌀한 날씨에도 시민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고 게시판을 둘러봤다. /손진영기자

지지향(紙之香)

인문학 산책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가을과 겨울이 뒤섞여 있는 깃발 같은 바람이 도시의 오후를 긴장시키고 있다. 모방할 수 없는 색조를 띠어나게 한 나무들이 새로운 계절의 입구에서 전령처럼 서 있다. 낙하 지점을 아직 찾지 못한 노란 은행잎들은 황금색 군무의 동작을 멈추지 않은 채 하늘을 찬란하게 만든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보게 되는 풍경이지만, 그렇다고 이미 너무도 익숙해져서 감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와 헐거워야 하는 잔해들이 아니다. 거기까지 달려온 존재가 마침내 피워내는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집착의 욕망이 없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자유로움이 도리어 완벽의 힘이 된다. 수없이 되풀이되는 계절의 길을 인간이 오늘도 처음 마주하는 것처럼 걷는다는 것은, 결국 착지점에 이르기 전 자신의 몸과 영혼에서 흘러져 나오는 빛깔을 찾는 여정인지도 모르겠다.

그 여정에 책은 소중한 벗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책을 읽지 않고도 살아가는 일이 불편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 들여버린 습관이다. 뇌세포에 줘야 하는 양분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뇌가 메말라가게 하고 있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는 모양이다. 사실 뇌만이 아니다. 마음의 결이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져가는 과정이다. 생각은 진화를 중지하고 깨우치는 힘은 쇠약해지며 영혼의 눈은 점점 흐려져갈 것이다.

한 시대에 충격을 준 위대한 저서는 인류 문명의 거대한 산맥, 그 자체다. 책은 그 산맥의 동반에 앞장서주는 좋은 인내자다. 따라서 책을 포기해버리는 인생과 사회는 보다 높고 큰 세상을 볼 의지를 잃어버린 처지에 빠지고 만다.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런 지경에 몰리고 있는 중이다. 디지털이 종이를 밀어내고 활자 문화를 질식시키고 있다. 책을 펼쳐 종이 냄새를 맡으며 행복해하던 세대들은 어느새 흑백 사진이 되고, 스마트폰 액정 화면에 줄기차게 꽂힌 시선들은 우리의 동공(瞳孔)이 되고 있다.

이런 시절에 파주출판단지 안에서 매주 토요일 저녁 책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작가와 예술가들이 향연을 열고 있다. 객석에 앉아있는 이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이 축제에 동반자가 되고 있다. 책 종이의 향기에 취하는 시간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 페스티벌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이름은 '지지향(紙之香)'. 도시의 긴장에서 풀려나는 문화 해방구다.

태국에도 없는 '사면법'

기자수첩
조선미
<글로벌부 기자>

태국이 '정치인 사면법'으로 한바탕 몸살을 치렀다. 최근 정치인 사면법이 하원을 통과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연일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결국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는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인 사면법은 지난 10년간 정치적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거나 기소된 정치인을 사면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이달 중순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야당 의원들과 시민들이 사면법 소식에 거세게 반발하며 시위를 펼친 이유는 뭘까? 이 사면법이 잉락 총리의 오빠인 탁신 전 총리의 비리를 감싸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부정부패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현재 해외 도피 중인 탁신 전 총리는 동생 뒤에서 '훈수 정치'를 하며 호시탐탐 정계 복귀를 노리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정치인은 다르다. 사면법이라는 면죄부를 통해 죄인의 굴레를 가볍게 벗어 던진다. 또한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둔갑시키고 있는가 하면 관련 법률은 손쉽게 바꾸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자주 논란이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리 정치인과 파렴치한 경제사범들이 '봐주기식 사면'의 혜택을 입는 게 문제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제정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우리나라 사면법. 정치(政治)가 정치(正治)가 되려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metro sports

이상화 500m 또 세계신기록
이상화가 10일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국제빙상연맹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 여자 500m 디비전A 2차 레이스에서 세계신기록을 작성한 뒤 기뻐하고 있다 /AP 뉴시스

<한국인 유럽리그 무대>

첫 해트트릭 '손세이셔널'

손흥민 함부르크전 3골 1도움 "친정팀에 미안"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손세이셔널 손흥민(21 바이엘 레버쿠젠·사진)이 친정팀을 상대로 첫 해트트릭을 작성했다.

손흥민은 10일(한국시간) 독일 레버쿠젠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함부르크와의 2013~2014 분데스리가 12라운드 홈경기를 마치고 구단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 경기는 나에게 매우 특별했다"면서 "무척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함부르크를 상대로 손흥민은 전반 9분과 17분, 후반 10분 연속골을 폭발하며 독일에서 처음으로 한 경기 세 골을 몰아쳤다. 이로써 손흥민은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유럽 주요 리그 공식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작성하는 기록도 남겼다. 후반 27분에는 슈테판 키슬링의 쐐기골을 어시스트하면서 생애 최고의 경기를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공교롭게도 상대팀은 손흥민이 유소년팀에서 시작해 지난 시즌까지 주축 선수로 성장했던 함부르크였다. 이 때문에 함부르크 구단 홈페이지에도 손흥민의 인터뷰 내용이 소개됐다.

그는 "함부르크는 나에게 항상 가족 같은 팀"이라면서 "이번 경기를 앞두고 무척 떨렸다"고 각별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어 "즐겁게만 하자고 생각했는데 잘 해냈고 경기에서 이겼다"면서도 "상대가 친정팀이라 미안하기도 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분데스리가는 손흥민을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했고, 현지 일간지 빌트와 유로스포트 전문가들은 손흥민에게 최고 평점을 부여했다. 축구전문지 키커는 "이날 경기는 손흥민의 축제였다"고 평가했다.

/채성운기자 yme@metroseoul.co.kr

프로축구 전적 10일

수원	1	2	포항
제주	1	0	전남
대구	0	1	경남
대전	1	2	부산

프로배구 전적 10일

대한항공	3	1	현대캐피탈
러시앤캐시	0	3	삼성화재
흥국생명	2	3	기업은행

프로농구 전적 10일

KT	10	26	17	15	68
SK	22	13	22	14	71
KCC	12	14	19	20	65
전자랜드	20	25	23	20	88
동부	17	17	23	21	78
인삼공사	24	20	20	17	81
우리은행	19	21	24	21	85
신한은행	25	9	20	15	79

'9m 버디' 최유림 KLPGA 첫승

최유림(23 고려신용정보)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ADT캡스 챔피언십에서 연장 접전 끝에 첫 우승을 차지했다.

최유림은 10일 부산 기장군의 아시아드 골프장(파72 659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4타를 줄여 합계 5언더파 211타로 장하나(21·KT)와 동타를 이뤘다. 18번홀(파4)에서 치러진 연장 1차전에서 파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최유림은 2차전에서 9m짜리 버디 퍼트를 넣어 우승을 결정짓고 상금 1억원을 받았다.

2009년 프로에 데뷔한 최유림이 정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장성은기자

부조리한 두려움

임경선의 모놀로그

지난주 한 국회의원의 발언이 화제였다. 프랑스 거주 한인과 유학생, 관광객 등 100여 명이 파리 트로카데로 인권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것을 두고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이 '이번에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채증 사진 등 관련 증거를 법무부 등 사계 관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아닐걸요'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것이다.

법적으로 타당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전직 법조인 국회의원의 발언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국민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도 모자라, 글쓴이의 생각이 같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거라는 일방적 단정 지음은 네티즌의 뭇매를 맞게 됐다.

강 건너 사람들은 '분노'가 감정의 최고치겠지만, 실제 현장 사람들이 느끼는 건 실질적인 공포다. 시위 현장에 있던 한 관광객이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두려움을 적나라하게 호소했다.

"저 … 무서워해야 하나요? 괜찮아 없는 투사 되는 건가요?"로 시작한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마치 자제 검열하듯 진지하게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법무부에 조사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자신의 과거의 모든 행적이 파헤쳐지는 것인지, 앞으로 불이익을 얻게 될 것인지 다급하게 물었다. 법적으로 자신을 보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변명하고 입장을 밝히고 사상 고백을 강요받는다면 끔찍할 것만 같다며 '내가 그래도 이런 부조리한 폭력 앞에선 그런 공포스러운 상상을 했을 것이다.

'예기불안'이라는 말이 있다. 실제 불행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미리 그 사태를 염두에 두고 미리 불안해지는 심리. 세상에 보호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처럼 끔찍한 건 없다. 그 불안감에 물들면 사람들은 어느새 무의식중에 자기 검열을 하며 말을 아끼게 된다. 공인(국회의원이야말로 '공인'이다)의 반민주적 발언은 경시돼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세우는 건 오랜 세월이 걸리고 어려워도 허무는 건 순식간이다. /칼럼니스트

날씨

11/11 月 일출시각 07 07 일몰시각 17 2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131.co.kr

서울 -4/9
청주 0/9
대전 2/9
전주 2/9
광주 4/9
제주 8/12
강릉 3/8
울릉도 4/8
대구 3/11
포항 4/11
울산 4/11
부산 5/11

긴장 속에서 말하면 카타콜아민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관을 좁게 만들어 고혈압을 유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 가능 지수
뇌졸중 가능 지수
피부 질환 가능 지수

지수제공 : 성균관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533-8877
www.sanghoe.com

직장 그만두고 유럽 배낭여행 또 가고싶다면 가까운 곳으로

(여)lo 여자 80년 0월 0일 0시

Q 지난번 상담 때 여자에 신중하라고 하셨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텐데 재취업운이 있나요? 한 번 더 여행 갈 기회가 생기진 않을까요? (생년월일은 비공개로 부탁드립니다.)

A 직장을 구하는 일은 순조로우나 한시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됩니다. 여행을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받아들이세요. 자금을 마련해야 할 테니 직장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정해 추진하세요. 새로운 상황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운세가 2018년까지 지속됩니다. 그 후 새로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후회하지 마십시오. 헤쳐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주저앉아 후회하는 것보다는 생산적일 것입니다. 생일지에 천을귀인(귀인의 도움)이 있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천록지충(天祿地冲)도 있으니 이상이나 모르는 현실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말년 운세가 안좋다고 하는데 환갑 지나면 복은 찾아올수도

휘고와 남자 67년 11월 14일 오전 6시

Q 기혼으로 1남 1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초년에는 부모님이 이혼하는 바람에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후 부모님이 재결합했지만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 15년째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점을 보면 52세 이후 말년 운세가 안 좋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A 과거의 삶이 보통의 범주를 벗어났던 사람들이 말년에 경제적인 여유나 편안함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비록 자금은 생활이 안락하더라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환갑이라 하면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로 그 이후가 문제가 되겠지요. 부친과는 사묘절(死墓絶: 단절됨)되어 인연은 어루기가 어렵습니다. 천륜을 어길 수는 없으니 자식 된 도리로 아버지에게 예를 쓰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귀하의 자식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돌고 도는 인생, 인연법에 의한 인연의 깊이겠지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주제를 선택하여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8	1	
3		1			5	9	2	
		3	4		1			9
2								3
4			5		9	7		
	2	8	1			3		6
	3	5	6					

			4					8
						2		
				8		1	3	9
5					4	6		
4		6	5		1	9		2
		2	9					1
3	1	8		7				
		9						
6					5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슈퍼스도쿠 믹스터
(퍼즐러 미디어 리미티드 지음)

신점[神占] 운세

11월 11일 (음 10월 9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먹이가 동하니 움직여라. 60년생 새로 시작한 일은 기반이 단단해진다. 72년생 지나친 자신감은 오판 부를 수도. 84년생 빛나는 섬자가 현재를 바꾼다.

소 49년생 부부가 원래 화합하니 유쾌하다. 61년생 고민 매듭지은 후 다음을 생각할 것. 73년생 튀는 언론은 역효과. 85년생 길 잃은 나그네가 길을 찾은 격.

호랑이 50년생 추진한 일은 성사된다. 62년생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기회가 오는 법. 74년생 뛰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86년생 구직자는 좋은 소식 기대해도 좋다.

토끼 51년생 자녀의 선물에 함충하구나. 63년생 멀리 출장 갈 일 생긴다. 75년생 변수가 많은 날이니 끝까지 최선 다하라. 87년생 상사의 '칭찬 보약'을 먹고 비상.

용 52년생 과장된 말은 신뢰만 잃는다. 64년생 따질 땐 확실히 따져라. 76년생 직장인은 부러움 살 선택 올린다. 88년생 원인의 마음이 싱숭생숭하니 잘 살펴라.

뱀 53년생 친한 벗 문서 갈 일 생길 수도. 65년생 이심전 으뜸 잡은 손해 부른다. 77년생 생각지도 못한 재물이 들어온다. 89년생 혼자 힘으로 난제 극복하니 흡족.

말 42년생 실수가 약이 될 때도 있다. 54년생 남의 충고에 귀 기울여라. 66년생 게임이나 내기를 하면 승률이 좋다. 78년생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보는 안목 필요.

양 43년생 나눔의 기쁨을 만끽하는구나. 55년생 마음 맞고 혼자 웃을 일 생긴다. 67년생 명예는 손상되지만 지갑은 두둑. 79년생 운세는 길하나 뒤면 손해 본다.

원숭이 44년생 어려울수록 힘 합쳐야 한다. 56년생 힘진 벌로이니 매사 조심할 것. 68년생 지나친 침묵은 오해 부른다. 80년생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신경 써라.

닭 45년생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하루. 57년생 마음이 따뜻하니 복이 굴러온다. 69년생 관월을 하려면 지나간 실수는 빨리 잊어라. 81년생 굽히면 득하는 법이다.

개 46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58년생 아랫사람에게 주문 사항 줄여라. 70년생 일게 됨으로 때문에 주위 일때봐라. 82년생 상사 눈치 보는 척하는 게 편안.

돼지 47년생 파격적 행보는 피하라. 59년생 잠수 부리면 자기 덫에 걸린다. 71년생 견제하는 사람이 많으니 언행 조심. 83년생 구애 작전은 화끈할수록 효과 좋다.